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010-2231-174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박효주 간사 02-723-5303)
제 목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날 짜 2022. 12. 24 (총4쪽)

보 도 자 료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2. 12. 24(토)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앞

1.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52개
주거·반빈곤·청년·복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지난 10월
17일부터 69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오늘 새벽, 국회는 법정 기한을 20여일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해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조 6,864억 삭감안에서 6,630억원('22년 20조8천억 →'23년 15조
7천억)만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이 역시 공공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형인 전세임대주택 용자라고 하니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반면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전년대비 1조 1,138억원('22년 3천억 → 23년 1조 4천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 이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12/24)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69일간의 농성단의 활동 성과 보고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하는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및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해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24일(토)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참여연대
 - 발언3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발언4 : 옥바라지선교센터
 - 발언5 : 동자동사랑방
 - 발언6 : 민달팽이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홈리스행동
 - 퍼포먼스

* 발언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1. 기자회견문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부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해단하며

“꺾이지 않은 우리가 이겼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놔라, 공공임대!

오늘(24일, 새벽),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시민들의 절박한 민생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와 여당의 대통령 바라기 앞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회 권한인 예산안 의결권은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 앞에 무력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집답지 못한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5조 6천8백억 삭감안에서 6천6백30억원만 찔끔 증액되었을 뿐, 결국 올해 대비 5조원이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선(善)이 아니다”라며 재벌과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게 약자를 위하는 것인냥 말하는 대통령의 부자 편향과 약자 외면이,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국회가 처리한 ‘부자동행, 약자 외면’ 예산안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69일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닌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을 주거권의 새해로 열기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69일간의 농성은 빼앗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복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기득권 권력에 맞서 꺾이지 않고 싸운 우리의 69일간의 투쟁은 하루 하루가 승리의 날들이었다. 고대광실 국회 앞에 작은 천막 농성장 설치가 가당키나 하나며 득달같이 달려든 공권력의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 가난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쟁취하기 위한 천막집을 세운 첫날부터 우리는 승리했다.

반짝이는 금배지를 달고 공공임대 예산엔 관심도 없이 집부자 감세를 논의하던 국회의 테이블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쟁점이 되게 만든 우리가 승리했다. 농성장을 단 하룻밤도 비울 수 없다며 영하의 맹추위에도 농성장을 지킨 우리가 승리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을 주거권의 길을 여는 시대의 꽃대로 지켜낸 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쪽방·고시원·반지하 세입자들이었고 거리 홈리스와 임대주택 대기자였으며 청년과 세입자 당사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지긋지긋한 것들, 이제는 집도 달라고 하네”라는 집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아냥에도 국회 본청 앞을 가득 채워 “내놔라! 공공임대!”를 당당하게 외친 우리가 승리했다.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로 맞선 우리가 승리했다. 국회를 등지고 108배를 올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대며 오체투지를 하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활짝 웃었던 우리가 승리했다. 절망적인 국회의 예산안 논의 상황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을 만들어간 우리가 승리했다. 꺾이지 않고 싸우며 전진한 우리가 승리했고, 아집과 무력의 민낯을 보여준 저들이 패배했다.

오늘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은 여기서 멈춘다. 농성을 해단할 뿐, 주거권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까짓 5조 7천억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길, 주거권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즐겁게 싸운 69일간의 기억, 모두가 함께 만든 감동적인 날들을 간직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권을 향한 싸움을 더 크고 더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69일간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쟁취, 꺾이지 않은 우리가 마침내 이긴다!

2022. 12. 24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참여자 일동

고려대민주학생기념사업회,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공공주택추진모임,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나눔과미래,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 (사)성북청년시민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행동, 시민건강연구소, 시시한연구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세입자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윤석열개악저지청년학생연대회의,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환 서울,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전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전연대, 청년녹색당,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52개 단체)